

사 설

여름은 전법의 계절

여름이 되면 학생들은 방학을 한다. 일반 직장에서도 휴가를 맞아 그동안 피로했던 심신을 여가선용으로 달랜다. 근간 MF한파로 다소 위축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 방학이나 휴가는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즐거운 기간이다.

생각하면 옛새를 일하고 하루를 휴식하는 일주일 단위의 공부나 근로도 길게 한 학기나 일년을 두고 본다면 역시 생활리듬에서 오는 긴장의 축적이 있게 마련이다. 방학이나 휴가 기간을 활용하여 이런 축적된 피로를 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심신을 가진다는 것은 생활리듬 면에서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하겠다. 사람의 인체는 아주 정밀한 자동계처럼 생겼다. 그 여러 기능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생체를 활기있게 유지해 나가려는 속성을 지닌다. 이런 속성을 방해하는 것으로는 축적된 만성적인 자극, 즉 긴장을 유발시키는 심리내적 또는 환경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이런 요인들로부터 자신의 유기체와 자아를 보호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방학과 휴가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런 정비와 강화기능도 사회적인 기능으로 개발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특이한 것은 각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등에 의해 전문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되는 캠프이다.

불교계에서도 예년과는 달리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학을 이용해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한 여름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이다. 7월 23일~25일 실시한 '부다피아 어린이캠프'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파라미터캠프' 등 어린이·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수련대회와 여름캠프가 점점 정착되고 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앞으로도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시류에 따라 일회성으로 그치고 마는 많은 일들과 달리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를 가까이에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겠다.

우선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도우는 지도자들이 필수적이다. 전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과 경험을 쌓은 캠프지도자들이 양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통적이고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꾸며져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체계를 담고 축적된 경험이 검증된 것이라야 한다.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의 종교는 그 종교에 대한 관심과 스스로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보다는 분위기와 행동화를 도울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야 한다.

또한 각 종단과 사찰에서 미래불자의 씨를 뿌린다는 자세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힘이 결집되지 않고는 실천이 어려울 것이다. 각 사찰에서 소규모로 캠프를 여는 것도 필요하고 범종단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도우는 일도 함께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한 내용을 금년 2월에 보충한 부분이 있다. 신체적 안녕상태, 정신적 안녕상태, 그리고 사회적 안녕상태에 있어야 건강하다고 정의했는데 여기에 덧붙여 영적 안녕상태를 추가했다. 이 영적 안녕상태가 바로 종교적인 심성의 개발이다. 새싹들을 부처님 가르침에 흠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이요, 불교포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한 소장 종교학자가 한국종교에 대해 일갈하고 나섰다.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교수(사진)는 최근 서강종교연구회에서 발행한 <종교의 이해>에 '한국의 한심한 종교들'이란 글을 실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주요 종교의 행태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최교수는 21세기에 동양의 종교, 특히 '큰 가르침'인 불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며 질문을 던진다. "우리나라 불교는 새로운 영성과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 답변은 통탄에 가까운 비판이다. "무엇보다도 승려의 질이 문제이다. 아직도 19세기말쯤에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 우리나라에 세계 불교대회에 나가서 영어로 자기 논문을 발표할만한 불교학자가 몇이나 되는가? 세계불교의 종주국은 일본이었는데, 이 일본불교를 보고 신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각종단 대표자님과 신행단체장 등이 참석해 있던 해불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호법대책위는 제주도내 주요사찰 50여곳을 선정 '이교도들에 의한 불상파괴 규탄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독려하고 백중과 칠석날을 기해 각 사찰마다 호법법회도 봉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호법대책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에 종교보호법 입법화 △경향의 임정수사 △사법당국 책임 등도 강력하게 촉구키로 했다.

호법대책위원회장은 "한달사이에 연속으로 발생한 해불사건으로 인해 제주불교계는 폭발 임박직전에 있다"며 "하루속히 종교보호법을 제정 제3·4의 해불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김종근 기자 (gamja@buddhania.com)

제주불자들이 "참는데도 한계"

도립사서 또 해불... 각 사찰 호법법회 열어
조계종 총무원에 '종교보호법 입법화' 촉구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단 해불사건과 관련 제주도 전불자들이 해불방지에 나섰다. 원명선원 해불사건에 이어 7월 26일 애월읍 금성리 소재 도립사(주지 범현)에 석가모니 부처님상 오른손가락 2개, 문수보살상 왼손가락 4개가 훼손되는 해불사건이 발생했다. 이와관련 애월 파출소측은 95년 같은 수법으로 해불사건을 일으켰던 양모여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불교총연합회 호법대책위원회(위원장 도종·월라사주지)는 7월 27일과 29일 두차례에 중법정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제주불교호법대표대회' 각 사찰 호법법회를 봉행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결의했다.

호법대책위는 8일 오후 5시 보현사에서 제주불교호법대표자대회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해불규단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호법대표자대회에는 제주도내

각종단 대표자님과 신행단체장 등이 참석해 있던 해불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호법대책위는 제주도내 주요사찰 50여곳을 선정 '이교도들에 의한 불상파괴 규탄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독려하고 백중과 칠석날을 기해 각 사찰마다 호법법회도 봉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호법대책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에 종교보호법 입법화 △경향의 임정수사 △사법당국 책임 등도 강력하게 촉구키로 했다.

호법대책위원회장은 "한달사이에 연속으로 발생한 해불사건으로 인해 제주불교계는 폭발 임박직전에 있다"며 "하루속히 종교보호법을 제정 제3·4의 해불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김종근 기자 (gamja@buddhania.com)



○7월26일 새벽 제주 도립사에 이교도로 추정되는 괴한이 침입, 불상 2구의 손가락을 자르는 등 해불을 지행했다.

'종무행정 안내' 발간 조계종총무원, 72개 주제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행정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업무편람 자료집 '종무행정 안내'를 발간했다. 일반 행정 업무와 민원업무 기타 안내 업무 등 72개 주제에 대한 세부적 업무 양식과 각종

서류의 표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무행정 안내'는 4백50쪽 분량이다. 이 책자는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은 물론 종단 산하 단체들의 서식 목록과 업무 양식을 통괄하고 있다. 조계종은 검토본을 주요사찰 업무에 적용한 후 보완 완성을 발간 전국 본 말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nia.com)

국립공원 실직자 무료입장

9월까지...7월 한달 2천여명 면제

7월 한달동안 2천여명의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 받고 탐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과에

따르면 7월26일 현재까지 1천6백19명의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가 공원을 탐방해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31일까지는 2천여명이 무료입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연태 기자 (jygang@buddhania.com)

포교실태·의식조사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스님)은 올 12월 발간될 <포교방법론>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기 위해 중앙승가대 전산실(실장 김용철)에 의뢰, 포교실태 및 포교조사자 의식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두 조사는 전국 2백50개 사찰과 포교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도분포 분석 △사찰의 포교활동 실태 △포교담당자의 의식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 새로운 포교방향 제시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8월~10월중 실시될 조사 결과는 <포교방법론>에 실을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10일 대흥사 산중총회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천운)는 10일 오후2시 중무소에서 차기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7월30일 주지 임후보자 최종 마감결과 보선스님(前 총회의원) 단독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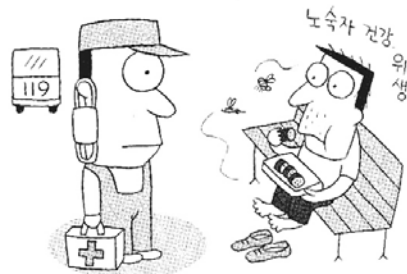
문화재 관리국 대전으로 이전

문화재관리국이 5일~7일 정부 대전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개최 등 관련업무는 대전청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북 내 국립문화재연구소 사무실을 서울연락사무소로 이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042)481-0114(대전청사)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현대불교 7대 신성

737-8881

현대만평



24시 대기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 2회(매년 2월, 8월)
■ 모집정원 : 150명

1. 교과목

1학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당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2학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불교사회복지론·화엄사상·불교학개론·선종사·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2. 정규반, 통신반 개설

☎ 732-1206~8/FAX 732-1207

4. 특전사항 :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1998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 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8년 9월 12일 (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송구 ... 장엄법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서 3장	98년 8월 1일(토) ~ 9월 11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00~4:30 (동산법당)

3. 입학금 · 일십만원

4. 원서교부 및 접수 ○ 본교육원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100-170)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98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수	내용
월요일	아함경	최봉수(동국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원음의 보고 아함경
화요일	능엄경	송찬우(승가대)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체의 정화인 능엄경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경 등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서 3장	98년 8월 1일~ 98년 9월 5일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통신반(30명)	④ 포교사 취득자	④ 불교대학(정규)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3. 개강일시 · 1998년 9월 7일(월) · 8일(화) 오후 7시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 본 연구원 사무국(종로구 견지동 13번지) 교부·접수 ☎ 732-1206~8, FAX 732-1207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